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22일) 2018년 2월 7일 수요일

PyeongChang 2018
D-2

평화올림픽 성공, 불교가 뛴다

중앙신도회 선언문 발표, 성화봉송 · 자원봉사 등 나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불자들이 나섰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평화올림픽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30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고 올림픽 응원 동참을 독려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대한체육회장)은 "올림픽에 세 번 도전해 20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북한이 동참해 호흡하고 있다. 민족의 대제전이 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후속 작업으로 중앙신도회는 올림픽 기간 동안 각 사찰 신도들과 스님들의 관전을 이끌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도 다시금 펼쳐져 평화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간다. 2017년 열린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2만 수보리의 합창'은 사찰 333곳에서 2만 3000여 명이 참여해 우중에도 금강경을 독송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올해는 4월 26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금강경 독송정진과 함께 '월인천강지곡'에 담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낸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500여개 모금소가 운영된다.

사찰서 평화기원법회, 성화 봉송도

전국의 각 사찰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먼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2월 3일 해운정사서 열린 신년특별법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신년특별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를 비롯해 지역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29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을 앞두고 구슬땀 흘리는 불자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설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표 스님들은 2월 14일 평창에서 경기 관람 및 응원전도 펼칠 예정이다.

강원 지역 불자들의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성화 봉송도 이어진다. 개막일인 2월 9일 정오에는 평창의 대표적인 한국전통문화 산실인 월정사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된다. 독일 前피겨선수 카타리나 비트가 월정사 일주문에서 팔각구층석탑까지 성화를 봉송한 후 경기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개막 전날인 2월 8일에는 강릉사암연합회 청우 스님이 강릉지역에서 성화봉송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1월 27일 양양 낙산사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됐다. 금곡 스님이 낙산사 해수관음사상에서 성화 봉송 후 3명의 주자가 원통보전과 보타전을 거쳐 의상대까지 성화를 봉송했다.

불교 평화사상, 외국인들에게 알린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낙산사, 백담사, 삼화사, 신흥사, 월정사에서 외국인특별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는 동반1인 포함 80%가 할인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들 사찰에서는 1년 후 받아볼 수 있는 '느린우체통'을 비롯해 숲길 포행, 발우공양 체험 등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도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원지역에서는 올림픽 기간 불자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진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와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진행되는 강원지역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전상웅 포교사단 강원지역단장은 "IOC 방침으로 올림픽 경기장에 종교부스 설치가 무산됐지만, 전통문화를 체험하려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림픽이 평화를 캐치프레이즈로 열리는 만큼, 불교 자비와 평화사상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A5면〉



심석희 위로한 큰스님 한마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코치의 폭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컸던 여자쇼트트랙 심석희 국가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큰스님이 진천선수촌에 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29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올림픽 국가대표 불자선수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선수들과 함께 식사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심석희 선수에게 "기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글=윤호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주요 불자선수들 佛心 레이스 일정

쇼트트랙	심석희	2월 13일	500m 결승, 17일 1500m 결승, 20일 3000m 계주 결승
	황대헌	2월 10일	1500m 결승, 17일 1000m 결승, 22일 500m 결승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2월 18일	500m 결승
	모태범	2월 19일	500m 결승
	노선영	2월 19일	준준결승, 21일 준결승 및 결승
스노우보드 평행대회전	이상호	2월 24일	결승
	최보군	2월 24일	결승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이광기	2월 14일	결승
바이애슬론	김용규	2월 11일	스프린트 결승, 12일 추적 결승, 15일 20km 결승
아이스하키	엄수연	2월 10일	스위스전, 12일 스웨덴전, 14일 일본전





동국대 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

조계종 승려복지회, 의료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올해부터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동국대 산하병원 입원진료비가 종단차원서 전액 지원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정우, 조계종 총무부장)는 "승려복지 지원과정서 나타난 민원을 해소하고, 불교병원인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일산 · 분당 · 경주)의 스님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그동안 승려복지회는 서울 · 경기 · 인천지역에서 종단 협약병원(동국대 일산 · 분당병원, 보리수요양병원) 또는 교구본사 협약병원을 우선적으로 가거나 그 외 병원의 경우 종단 협약병원서 이관된 경우만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에 대한 입원진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승려복지에 대한 스님들의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가톨릭서 신부와 수녀가 성모병원을 이용할 때, 원불교서 교무와 전무가 원광대병원을 이용할 때 혜택이 제공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선택진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승려복지회 재정적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대된 입원진료비는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 이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제외한 전액이다. 상급병실 이용료는 비용이 매우 높은데다 지원 시 남용될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아울러 승려복지회는 4대 중증질환(암 · 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임플란트 · 틀니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적용분)도 지원한다.

승려복지회는 "기대 수명 100세 시대, 승려복지제도 완비는 승가 수행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제35대 총무원 집행부는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서 벗어나 수행과 포교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를 최우선 종책과제로 선정해 안정적인 승가공동체를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 신규 조직

총무원장 등 21인 내 위원 구성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신도시 거점사찰 조성 등 조계종의 종단불사를 담당할 별도 조직이 구성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2월 1일 '종단불사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 · 공포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종시 및 위례신도시 거점사찰 조성사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시설사업 △10.27법난 기념관 시설 건립사업 △기타 추진위원회가 결의한 종단시설 건립사업 △종단불사추진을 위한 예산수립 및 모연사업을 수행한다.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이 맡으며 위원으로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총무원장이 추천한 교구본사주지 3인, 중앙종회 총무 · 재정 · 사회분과위원장, 총무부장, 불사총도감, 조계사 · 봉은사 관리인,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신도회장 등이 포함되며 총 21인 이하로 구성된다.

아울러 10인 이하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토목 · 건축 및 주변환경 조성, 시설계획, 건설사업자 선정, 설계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불사총도감이 맡는다. 윤호섭 기자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 (呑虛講塾)

2018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공고

– 불교 한문 공부는 탄허강숙 –

탄허강숙은『新華嚴經合論』완역 등 佛典譯經에 헌신하셨던 탄허(呑虛, 1913~1983) 선사의 교육정신을 받들어 설립된 불교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탄허 선사는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훌륭한 인재 1명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 인재양성에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인재를 양성해야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1학기(3월 개강) 탄허강숙에서는『벽암록』(석지현),『주역』(성태용 교수),『장자』(이상현 교수),『금강경오가해』(이상하 교수)를 강의합니다. 원전강독 중심으로 내용은 물론, 시대적 배경, 한문의 구조와 용례, 훈고 등에 대해서도 강의합니다.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훌륭한 哲人들과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공자는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습니다. 착해도 학문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고금(古今)의 지성(知性)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 2018년도 1학기 강의 일정 및 장소

● 일시 2018년 3월 6일(월) ~ 6월 31일(목) 저녁 7시 ~ 9시

● 방식 한문 원전 중심 강의 및 내용 해설 (초심자도 수강 가능)

● 장소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 2018년 1학기 개설 강좌

	월	화	수	목
강좌 및 원전명	벽암록(碧巖錄) 2017년에 이어 43칙부터 강의	금강경오가해 (金剛經五家解)	주역(周易)	장자(莊子)
강 사	석지현 벽암록, 종용록, 선시감상사전 완역자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이상현 한국고전번역원 초빙교수

※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일~2018년 3월 3일
• 접수방법 :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로 접수 또는 전화접수도 가능
• 수 강 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전과목 수강할 경우 55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 : 윤재승
수강료 입금시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교재는 개강일 배포
• 문 의 : 02-732-2403~4, H.P) 010-3731-1586/010-5226-2149

■ 강사 프로필

• 석지현(벽암록) : 동국대 졸업. 인도 유학. 선어록《벽암록》,《종용록》,《禪詩감상사전》,《우파니샤드》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이상하 교수(금강경오가해) : 고려대학교 박사. 현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십지경론》,《십송률》,《한암 · 탄허 선사 서간문》,《경허집》,《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 성태용 교수(주역) : 서울대 철학과 졸업. 건국대 철학과 교수, 정년퇴임(2017년). 건국대 철학과 명예 교수. EBS에서 '주역과 21세기'라는 제목으로 48회 주역 강의하며 인문학 대중화에 공헌. 노자(도덕경)와 장자(莊子) 강의. 한국철학회 회장. 재가불교단체 '우리는 선우' 공동 대표 역임.
• 이상현 교수(장자)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현 한국고전번역원 초빙교수.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20년 동안 장자 강의.《대각국사문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